

# SPA9102를 통한 군용 위성통신 역량 재구축

'26.02.18(수), 멜버른무역관

## □ 개요

- 호주 국방부는 기존 JP9102(Joint Project 9102) 군용 위성통신 사업 취소 이후, 이를 재구성한 SPA9102(Space Project 9102)를 통해 군용 위성통신 (SATCOM) 역량 확보를 재추진하고 있음
- SPA9102는 대규모 단일 위성 확보 중심의 기존 접근에서 벗어나, 비용 효율성과 대응력을 고려한 단계적·다중 궤도 기반 위성통신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함

## □ 상세내용

- 사업 추진 배경
  - 호주는 군용 위성통신 능력의 상당 부분을 미군 WGS(Wideband Global SATCOM) 네트워크 및 일부 상업용 위성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어, 독자적 군용 SATCOM 능력 확보를 중·장기 국방 전략 과제로 설정
  - 기존 JP9102 사업은 정지궤도에 2기 이상의 군용 통신 위성을 배치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으나, 약 70억 호주달러에 달하는 비용 문제로 2024년 11월에 해당 사업이 중단됨
  - 이에 따라 2025년 6월, 호주 국방부는 사업 규모와 구조를 조정하여, 대형 단일 위성 확보 대신 정지궤도와 저궤도 및 기타 위성 자산을 조합해 운용하는 단계적 확보 전략(SPA9102)으로 전환함
- SPA9102의 핵심 방향
  - 다중 궤도 기반 통신 구조: 정지궤도 단독이 아닌 저궤도 위성 등 다양한 궤도를 결합해 위협 대응력과 운용 유연성 제고
  - Resilient SATCOM: 전자전 및 교란 환경에서도 작전 수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
- 관심 기업 반응 및 향후 참여 가능 기업
  - 노스롭 그루먼(Northrop Grumman)은 미국 국방부 및 동맹국 대상 위성·우주 체계 구축 경험을 바탕으로, SPA9102가 현대 안보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히고, 호주 국방부와의 협력 가능성에 관심 표명
  - SPA9102는 단일 주계약자 중심보다는, 위성 플랫폼, 통신 부품, 지상 통제 시스템 등 다양한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음

## □ 무역관 의견

- SPA9102는 호주 방산 시장에서 우주·위성통신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
- 과거 대형·단일 프로젝트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, 단계적이고 기술 혼합형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 해외 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
- 특히 완성형 위성 체계뿐 아니라, 통신 부품, 지상 통제 시스템, 사이버·전자전 대응 기술 등 세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기회가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, 중소·중견기업의 간접 참여 가능성도 기대됨
- 한국 기업은 향후 RFI(Request for Information) 및 후속 조달 절차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, 현지 방산 기업 및 글로벌 주계약사와의 파트너십을 중심으로 단계적 시장 진출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

## □ 정보원 및 일자

- \* 2026년 2월 12일, Australia Defence Magazine (<https://www.australiandefence.com.au/news/news/northrop-grumman-eyes-refreshed-spa9102>)